



스위스 기각스 부상... 야킨 투입 할 듯

프라이 유톤에 처진 스트라이커 유력

A매치 47경기서 14골 스위스 축구 영웅

아드보카트호와 오는 24일(이하 한국시간) 하노버에서 2006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 G조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는 스위스 대표팀이 다니엘 기각스(25·릴)의 대체 방안을 찾고 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 등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기각스는 토고와 2차전에 선발 출전한 뒤 복부를 다쳐 하프타임에 교체됐고, 한국전에는 뛸 수 없는 상황이다.

쿠노 베렐 스위스 대표팀 닥터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정밀 검사 결과 기각스는 복부 근육 부상으로 한국과 경기에는 뛸 수 없게 됐다. 다행히 심하진 않아 16강전 이후부터는 출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코프 쿠비 쿤 감독은 “기각스의 대체선수를 찾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누가 될지 아직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각스는 독일 월드컵 유럽에선 10경기에 출전해 1골을 터트렸고,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프랑스전 후반 교체 출전, 토고전에는 선발 출전했다. A매치에서는 24경기에 5골을 기록 중이다.

스트라이커 요한 폰란텐이 대회 직전 부상으로 최종 엔트리에서 빠지며 공격

라인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스위스로서는 기각스의 공백이 반감지 않다.

기각스 대신 한국전에 투입될 선수로는 플레이메이커 하칸 야킨(29·영보이스)이 유력하다.

폰란텐의 대체 요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뛸 수 있게 된 야킨은 A매치 47경기에 출전해 14골이나 몰아넣은 스위스 축구의 영웅이다. 야킨은 토고전 후반 기각스 대신 투입돼 활발한 몸놀림으로 스위스 공격에 또 다른 활기를 불어넣었다. 쿠비 쿤 감독도 “기대 이상으로 잘 해 줬다”며 야킨의 이날 플레이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쿠비 쿤 감독은 프랑스와 1차전에는 알렉산더 프라이(27·스타드 렌)-마르코 슈트렐러(25·쾰른), 토고와 2차전에는 프라이-기각스를 최전방에 세웠다.

한국전에는 다시 프라이-슈트렐러를 선발로 내세운 뒤 상황을 봐 야킨을 교체 투입할 수도 있고, 이에 처음부터 프라이 유톤에 야킨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배치할 가능성도 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9일 열린 G조 스위스와 토고의 경기에서 스위스 미드필더 야킨(뒤쪽)이 토고의 포워드 포슨을 앞에 두고 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G조 상대국 25시

도메네크 “심판들 스위스 편들어”

레몬 도메네크 프랑스 축구대표팀 감독이 2006 독일 월드컵 축구 조별리그에서 심판들이 스위스를 편들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스포츠전문 통신사 SI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도메네크 감독이 “스위스는 조별리그 G조 1 차전과 2차전에서 심판에게 우대를 받았다”면서

“심판은 프랑스-스위스의 1차전은 물론 토고와 맞붙은 2차전에서도 상대 팀에 마땅히 쳐어야 할 페널티킥을 블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도메네크는 “G조 1차전의 경우 페널티 지역 안에서 스위스 수비수 파트리크 뮐러(30·리옹)의 손에 공이 맞아 헌들링반칙이 선언돼야 했었고, 2차전에 서는 텔러가 토고 공격수 아데바요르를 페널티 지역

안에서 밀어 넘어뜨렸는데도 두 번 모두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예를 들었다.

한편 도메네크 감독은 토고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는 그동안 경기애 나서지 못했던 다비드 트레제

계(유벤투스)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프랑스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24’가 21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한국 이기면 격려금 7천만원”

스위스축구협회(ASF)가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독려했다.

ASF는 24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한국전에서 스위스가 승점 3점을 보태 16강에 진출하면 선수단에 9만 스위스프랑(한화 6천959만원)을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했고 밝혔다.

ASF는 “9만 프랑 가운데 1만5천 프랑은 한국전 승리 수당이며 나머지 7만5천 프랑은 16강 진출에 대한 보너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전 무승부의 대가로 5천 프랑을 선수단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ASF는 스위스가 토고를 2-0으로 완파하고 조 선두로 올라서자 지급 규모를 2만 프랑으로 올려 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선수단

에 지급되는 보너스는 한국전 결과에 따라 7만 프랑(한화 약 5천144만원)이나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스위스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4℃의 날씨에도 더위 죽겠다고 한탄하는 등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독일 언론이 비꼬았다.

독일 유력 일간지 프朗크푸르터 룬트sha우는 스위스 수비수 루드비크 마냅이 지난 19일 토고와 2차전을 앞두고 “매일 비가 오기를 빙고 있다”며 엄살을 피웠더니 그를 ‘이 주(週)의 엄살쟁이’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날 경기는 열린 도르트문트 기온은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기록에 따르면 고작 24℃에 불과했고 신문은 밝혔다.

FIFA, 토고 출전수당 미리 지급

국제축구연맹(FIFA)이 토고 선수들의 출전수당을 현금으로 미리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고는 출전수당 분쟁 없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24일(이하 한국시간) G조 3차전 프랑스와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마르쿠스 지글러 FIFA 미디어 담당관은 이 같은 현금 선지급 방침을 밝힌 뒤 “문제는 해결됐다”며 “토고가 보너스 분쟁으로 더 이상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월드컵 배당금은 대회가 끝난 뒤 출전국 협회에 지급되는 게 관례지만 토고가 경기 보이콧을 운운하는 등 소란을 피운 탓에 FIFA가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 토고 선수들은 토고축구협회에 프랑스와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이전에 보너스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왔다.

국가마다 배정되는 월드컵 출전 배당금은 570만 달러(약 54억5천만원)다.

아가사 “프랑스전 최선 다하겠다”

토고의 주전 골키퍼 코시 아가사(28·메츠)가 남은 프랑스 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축구 전문 인터넷 사이트 ‘사카365’는 ‘아

“스위스는 패스 안되는 팀”

아드보카트호와 G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 스위스 대표팀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 독일 서부 휴양도시 바트 베르트리히의 쿠르호텔 뛰어스텐호프. 야코프 쿠비 쿤(63·사진) 스위스 대표팀 감독이 잠시 곤욕을 치렀다.

한 스위스 기자가 “스위스는 패스 미스가 많다. 어제(토고와 2차전)도 다시 한번 나타났다”며 대책을 물었다. 쿠비 쿤 감독은 “맞다. 어제도 그랬다”며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기분이 언짢았는지 곧 “패스 미스는 축구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



2-0으로 승리

하긴 했지만 불

점유율은 50대

50. 실제 볼을 갖

고 경기한 시간

이 토고와 나란

히 28분씩으로 같았다. 스위스를

반드시 꺾어야 자력으로 16강 진

출을 확정지울 수 있는 아드보카

트호는 자타가 인정하는 스위스

의 약점은 반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나 토고와 마찬가지로

강한 압박으로 스위스의 패스 길

을 미리 차단하고, 패스 미스를

유도한다면 승리의 여신은 아드

보카트호를 향해 미소를 보낼 것

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쿠비 감독도 기자회견서 인정

“토고전선 개선 여지 보여줬다”

제는 분명 개선의 여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춤출한 그물망같은 조직력이 강점이다. 조직력만큼은 세계 어느 강호들과도 견줄 만한 수준급 팀이라고 아드보카트호의 비전선사들 입을 모은다.

하지만 패스는 잘 찌어 커튼 같은 조직력을 잘 어울리게 투박스럽다. 쿠비 쿤 감독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토고와 2차전에 서도 찾은 패스 미스로 공격의 흐름을 원활히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사: 토고는 프랑스 전에 준비가 돼있다’는 제하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아가사가 ‘우리 팀은 프랑스 전을 앞두고 의욕에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가사는 “우리의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프랑스 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가사는 이어 “우리는 프랑스 전에 자부심을 갖고 뛸 것이며 토고 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스위스 전을 치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가사는 이 언더뷰에서 토고 선수들이 일정 금액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아가사는 ‘19일(현지시간)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우리는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가사는 이어 “우리는 토고 축구협회가 약속을 지키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시 최고

사전 2006년 6월 22일
신청방법 김경환(730103-1228227)
전화 해금권 해제권 구교리 02-103-804

여기 기재한 내용은 공시 최고기준인 2006. 9. 26. 16:00(이하 이날로부터 6개월은 평균의 신고를 하여 그동안 제출한 바와 같다. 이를 이용 계약이면 권리로 사용하여 허용된다.)에 기재한 내용과는 달리 이를 계약하여 권리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기재한 내용과는 달리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명류: 자기인수표
· 번: 라이센스 02-103-802124
· 금: 금: 1,000,000원
· 발 행 일: 2006. 6. 7
· 발 행 인: 동원증권(주) 해남군 지부

2006년 6월 22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희

여음·가계·담보

◆여음1,000萬 원
이하 환영
[月 2~ 5.5%]
(등록업체)

010-3009-6633

최고급 부동산 정보 매물 시세

(www.R114.co.kr)

하루평균 23만명이 클릭하여 380만 페이지를 검색하는 www.R114.co.kr은 전국 1만5천개 중개업자 회원으로 가입되어 전국의 APT, 토지 등 부동산 매물 500만건 이상이 수록되어 있고 APT, 토지 등의 시세, 시황, 임대차 정보 및 부동산의 전망 실시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사이트입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엔진에 부동산 114

부동산의 모든것 안방에서 한방에

끌내세요!

부동산 14(주)호남지사
중개업소 회원가입문의

☞ 070-7011-7114

부동산 14(주)호남지사
회원가입문의

부동산 14(주)호남지사
회원가입문의

부동산 14(주)호남지사
회원가입문의

부동산 14(주)호남지사
회원가입문의

노량진 올스타 교수진 출강

개 강
7월 3일

★ 노량진 올스타팀 광주 상회 기념 여름방학 특강 이벤트

1. 학격 전략 설명회 및 무료 공개 특강
2. 공개 특강 참석자에 대한 경품 행사 실시

국어: 서승천
설계